

프로 엄마의 최강 공부 방법

# 입시는 엄마가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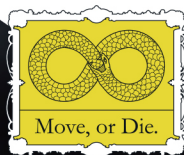
나다 중·고교  
↓  
도쿄대 의대에  
3형제가 합격!

사토 료코 지음 | 오시연 옮김

## 3형제의 코멘트와 재치가 가득!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습관은 어머니 덕분이다 첫째 아들  
입시는 어머니와 이인삼각의 싸움이다 둘째 아들  
어머니의 지원으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었다 셋째 아들

atom



## 말하자면 나는 ‘프로 엄마’다.

소중한 생명을 열 달간 품었고 또 낳았으니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부모가 아이의 공부와 입시를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물러설 필요는 전혀 없다.

입시는  
엄마가  
90%

JUKENWA HAHAOYAGA 9WARI!

Copyright © 2015 Ryoko SATO, All rights reserved.

Original Japanese edition published in Japan by Asahi Shimbun Publications Inc., Japan.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Asahi Shimbun Publications Inc., Japan  
through Imprima Korea Agency.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Imprima Korea Agency 를 통해

Asahi Shimbun Publications Inc. 과의 독점 계약으로 atom 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프로 엄마의 최강 공부 방법

입시는  
엄마가  
90%

사토 료코 지음 | 오시연 옮김

먼저 이 책의 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둔 전업주부 엄마입니다. 아들 셋이 나다(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도쿄대 의대에 진학한 일로 인해 이렇게 책을 쓰고 때때로 강연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온 힘을 쏟았지만 이른바 ‘교육 마미’는 아닙니다.

‘교육 마미’라고 하면 입만 열면 “빨리 공부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지!”라며 아이들을 몰아세우는 무서운 이미지가 있지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야단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배우면서 아이들의 생활과 공부를 뒷받침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교육에 관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

이 책에는 세 아들과 남편의 말도 나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었구나!'하고 꽤 여러 번 놀랐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우리 집에서 통했던 방식이므로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2015년 7월

사토 료코



서문

사토 가의 등장인물

사토 가 삼 형제 + 막내딸의 행보

제1장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아이를 합격으로 이끄는 것은  
엄마인 당신입니다!



나의 출발점

내가 '아이의 입시를 책임지겠다'고 결심한 이유

엄마라는 길

엄마는 깊이 있는 직업, 엄마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엄마의 역할

주저하지 말고 아이의 공부를 뒷받침해라

아이와의 거리감

아이 곁을 계속 지키면 사춘기를 잘 넘길 수 있다

정보의 취사선택

항상 아이를 생각하며 내 나름의 노하우를 만든다

형제 관계

형제간에 공평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 아이의 성격

아이의 개성을 살려서 공부시킨다

### 집안일

아이의 교육에 온 힘을 쏟고 남은 힘으로 집안일을 한다

### 부부의 역할 분담

아이 교육은 엄마인 내가 100% 책임진다

### 남편과의 관계

‘대학에 합격할 때까지는 아이가 최우선’임을 남편에게 이해시킨다

### 아이의 장래와 진학

‘학력’과 ‘지능 편차치’가 다가 아니다, 아이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응원한다

### 학원 활용법

좋은 학원은 아이의 능력뿐 아니라 엄마의 교육 방식도 발전시킨다

### 학교 선택

들어가기 힘든 중·고등학교를 목표로 하라

**칼럼** 학원을 ‘집에서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고르지 않는다

## 제2장

# 아이가 익혀야 할 학습 방법과 자세, 그리고 엄마가 할 일



### 공부 환경 조성하기

거실에 책상을 놓아서 일상에 공부가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휴식 방침

TV, 게임, 만화는 ‘특별한 일’로 정한다

### 휴대전화

아이와 휴대전화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엄마가 맡아 둔다

**칼럼** 원하는 장난감은 사주고 정해진 용돈을 주지 않는다

**칼럼** 컵라면은 시험공부의 상으로

### 숙제

학교 숙제와 학원 숙제는 아무리 힘들어도 완벽하게 마친다

### 국영수 이외의 과목

음악, 가정, 체육 등 입시와 관계가 없는 과목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 꼭지 시험

'90%는 한다'는 위험한 말, 시험은 100점을 노린다

### 칭찬과 꾸지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담담하게, 엄마는 일정한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 아이 곁을 지킨다

아이가 공부할 때는 엄마도 자지 않고 곁에 있다

### 시간 관리

지각은 금물! 시계를 20분 빠르게 맞춰 놓는다

### 일정 관리①

중간 · 기말고사, 입시 등 공부 일정은 엄마가 세운다

### 일정 관리②

2개월분의 달력을 붙여서 일정을 '시각화'한다

### 시험 전의 공부 계획

출제 범위를 파악하여 언제 무엇을 공부할지 엄마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 엄마의 일정

자신의 일정도 수첩에 적어서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 학습 요령과 시간 배분

저녁 식사 후는 공부의 '골든 타임', 암기는 막간 휴식이다

### 집중력

키친 타이머는 집중력을 높여 주는 비밀 병기

### 필살 노트

식사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식사 예절은 철저히 지킨다

### 책장 정리법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참고서 정리는 엄마 몫이다

### 가족이 한 마음이 된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명절도 없다

### 즐겁게 공부한다

아이와 함께 예상 문제를 내면 시험공부도 즐겁게 할 수 있다

## 제3장

### 초등학생의 공부 방법과 중학교 입시 대책



#### 초등학교 [기초 학력]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고 싶다면 기초 학력을 쌓아라

#### 초등학교 [국어]

엄마의 낭독이 효과적이다

**칼럼** 세 돌까지 그림책 만 권을 읽어 준다

#### 초등학교 [사회] [과학]

역사는 만화, 지리는 여행 책자, 과학은 식물도감이 효과적이다

#### 초등학교 [수학]

노트는 1쪽에 1문제, 확대 복사가 어려운 문제도 쉽게 만든다

#### 초등학교 [엄마표 교재]

확대해서 잘라 놓으면 곧바로 공부할 수 있다

#### 초등학교 [참고서]

이것저것 욕심내지 말고 한 교재만 제대로 본다

### 중학교 입시 대책 [기출문제]

입시에 대한 압박감에 이기려면 기출문제를 풀자

### 중학교 입시 대책 [모의고사]

판정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공부 성과를 측정하여 공부법을 수정한다

### 중학교 입시 대책 [필압]

합격하는 아이는 '적당한 필압'을 알고 있다

### 중학교 입시 대책 [입시 직전의 공부법]

시간은 유한하다, 입시 직전에는 '버리는' 용기를 가져라

### 중학교 입시 대책 [제1지망과 2,3지망 학교]

1지망 학교 입시 앞두고 다른 학교 입시를 친다

### 중학교 입시 대책 [지망 학교]

3지망 내에만 합격하면 대학 입시까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다

## 제 4 장

# 중 · 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방법과 도쿄대 입시 대책



### 중 · 고등학교 [학교생활]

연계된 중 · 고등학교이므로 중학 시절은 여유 있게 보내고  
고등학교 때부터 속도를 낸다

### 중 · 고등학교 [참고서와 문제집 고르는 법]

참고서와 문제집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엄마가 산다

### 중 · 고등학교 [참고서 · 문제집 진도 나가기]

얇은 참고서를 3번 봐서 기초를 다져라

### 중 · 고등학교 [영어 단어]

단어장은 중간부터 시작하고 한 가지 뜻만 외운다



### 중·고등학교 [영어]

중학생 때부터 도쿄대학 영어 수준인 영어 검정 시험 준1급에 도전한다

### 중·고등학교 [영어] [고전 시가·고전 문학]

해석을 먼저 읽으면 빨리 이해할 수 있다

### 중·고등학교 [비문학]

셋째가 “이거, 재미있다!”고 한 ‘테구치 현대문 강의 실황 중계’ 시리즈

### 사전 고르는 법 [영어] [국어]

입시는 효율이 생명, 종이 사전보다는 전자사전을 사용하자

**칼럼** 대학의 오픈 캠퍼스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 도쿄대학 입시 대책 [도쿄대학 입시 구성]

지피지기는 백전불패, 입시 구성을 빨리 파악한다

### 도쿄대학 입시 대책 [모의고사]

모의고사 문제지는 보관했다가 시험 전에 한 번 더 풀어 본다

### 센터 시험·도쿄대학 2차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려면 책을 쪼개서 연도별로 묶는다

### 센터 시험 대책 [사회]

센터 시험에만 나오는 과목은 고3 12월부터 몰아서 공부한다

**칼럼** 미신에 의지하기보다는 일상을 성실하고 차분하게 보낸다

### 도쿄대학 2차 [호텔 예약]

시험장 근처에 있는 호텔을 1년 전에 예약한다

### 센터 시험 [시험 전날]

사회 과목 등 암기 과목을 중심으로 복습하고 10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 도쿄대학 2차 [시험 1개월 전]

센터 시험 이후부터 2차 시험일까지는 시험 당일의 일정과 똑같이 하루를 보낸다

### 도쿄대학 2차 [시험 당일]

대학 문 앞까지 배웅한다

## 사토 마마에게 물어보자! 자녀 양육과 학교생활, 시험공부



- Q1. 사토 마마는 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대졸도 아니고 공부도 잘 못 해서 아이를 가르칠 자신이 없어요.
- Q2. 중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등급이 낮은 반에서 해매고 있어요. 그냥 계속 다녀도 될까요? 그리고 지방 학교는 언제까지 정해야 할까요?
- Q3.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복습을 할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Q4.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있는데 아이의 성적을 보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Q5. 아이가 중학교 입시에 실패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Q6. 학원이 좋을지 일대일 과외가 좋을지 망설여집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 Q7. 중학생인 아이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 조언하고 싶지만 아이가 거부합니다. 사춘기 아이와 잘 지내는 비결이 있을까요?
- Q8. 시험 전날에도 아이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짜증이 난 나머지 야단을 치지만 아이는 반발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먹을까요?
- Q9. 형제간에 성적 차이가 커요. 가급적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성적이 나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 Q10. 고등학생인 아들에게 여자 친구가 생긴 모양인데 도통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 Q11. 아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어요. 재수를 해야 할지 2지망에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 첫째의 이야기

공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 둘째의 이야기

앞으로 무언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셋째의 이야기

입시에 성공하려면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으세요

### 아버지의 이야기

아내의 강한 의지와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후기



## 제1장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아이를 합격으로 이끄는 것은  
엄마인 당신입니다!



## 엄마라는 길

엄마는 깊이 있는 직업,  
엄마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지금은 일과 육아를 양립한다거나 엄마도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된 시대다.

전업주부로 살며 살림과 애 키우기만 하는 삶이라니 따분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는 최고로 보람 있는 직업이다.** 일하는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듯이 **엄마라는 전문가를 목표로 삼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아닐까?** 소중한 생명을 열 달간 품었고 또 낳았으니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요즘에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 점점 늘어나면서 **맛벌이** 가

## 엄마의 역할

# 주저하지 말고 아이의 공부를 뒷받침해라



“이것저것 간섭하다 보면 아이가 성가셔하지 않을까?”

“일일이 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과보호가 아닐까? 결과적으로 아이를 망치진 않을까?”

“이렇게 하다가 버릇없는 응석반이로 자라면 어떻게 하지?”

많은 엄마가 이런 걱정을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의 공부와 입시를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물러설 필요는 전혀 없다.

된다.

물론 계산이나 암기를 하는 주체는 아이다. 하지만 엄마도 수학 문제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문제집을 복사해서 틀리기 쉬운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줄 수는 있다. 아이는 그런 부분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다음 날의 준비물을 가방에 넣고 잊은 것은 없는지 확인했다. 물론 대학에 들어가고 독립한 뒤로는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

지금 삼 형제는 도쿄대학 근처의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 청소나 세탁 등 집안일을 적당히 분담하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때때로 함께 밥도 지어 먹는 모양이다. 일부러 집안일을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이는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홀로서기를 한다. 가끔 “이불에 곰팡이가 피었어요!”라는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그런 일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 형제 관계

형제간에 공평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형인 내가 참아야지.”

“옆집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는 아이들을 형제나 친구와 비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이가 넷이나 되기에 나는 형제끼리 비교하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대하는 데 특히 마음을 썼다.

어찌다 태어난 순서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성적도 바이올린 실력도 일체 비교하지 않았다.

## 아이의 장래와 진학

‘학력’과 ‘지능 편차치’가 다가 아니다,  
아이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응원한다



여기까지 읽으면 내가 ‘학력에 목매는 여자’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최종 목표는 학력이 아니었다.

아이의 능력은 무한하다. 부모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아이를 최대한 성장시켜서 능력이 닿는 한 본인이 원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 결과가 세 아이 모두 도쿄대 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로는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

을 때 인생에 실패했다며 좌절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나는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인간으로서 풍요로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아이들에게 거듭 말했다. 공부를 하면 아름다운 모국어를 쓸 수 있고 헌법을 토론할 수 있으며 길가에 핀 꽃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틀림없이 즐거운 인생이리라.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든 간에 공부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손재주가 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전통 공예 장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장인이 될 경우에도 도료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려면 과학을 배워야 하고, 일본의 전통 공예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공부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나는 아이들에게 도쿄대 의과대학에 가라고 한 적이 없다. 물론 학교 친구들이 도쿄대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영향을 받긴 했겠지만 아이들은 각자 스스로 목표를 정했다. 나는 그저 일단 진로를 정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입시를 잘 치르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주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해 왔다.

인생은 끝없는 공부이다.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는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생활과 취직에 필요한 것을 계속 배워야 한다. 학



하지만 거실에 책상이 있으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또는 가족들과 수다를 떨다가 언제든지 바로 옆에 있는 책상에서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 엄마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

식사와 공부, 잠이 전부 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에 당연히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있고 누군가는 밥을 먹고 있으며 누군가는 바이올린을 쳐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는 행위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요즘 ‘똑똑한 아이’는 멋진 공부방이 아니라 거실이나 식탁에서 공부한다는 책이 많이 출간되었는데 이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하다.

아이들은 아주 가끔 혼자서 공부에 집중하고 싶을 때 ‘한 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하고 2층 방으로 올라갔지만 기본적으로는 1층에서 다양한 생활 소음을 들으며 공부했다.

공부 외의 측면에서 봐도 가족 모두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매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학교에서 힘든 일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좀 힘겨운 시기에 들어섰을 때에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

그렇게 긴밀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란 덕분인지 지금 삼 형제는 도쿄대학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이좋게 함께 살고 있다. 네 아이에게 각자의 방을 주고 ‘엄마는 거실에 있을게’ 같은 생활 양식을 취했다면 삼 형제가 이렇게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진 못했으리라.



### 첫째의 이야기

제 방이 따로 있었다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가족 중 누군가가 옆에 있는 환경이 참 좋았어요. 거실 바로 옆방에서 이불을 깔고 잤기 때문에 TV가 있는 2층에는 거의 갈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잠자는 방이 2층이었다면 TV를 봤을지도 모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집의 동선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이 세상에는 자기 방이 있는 사람이 많구나.’하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사실 없어도 괜찮았어요. 지금 우리 형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각자의 방이 없지만 어릴 적부터 이렇게 붙어 지내서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대학생이 되고 서로 바빠서 한밤중에야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 둘째의 이야기

학교와 학원이 집에서 멀기도 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입학시험을 치기 전에는 항상 집에서 공부했어요.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된다며 카페나 학원 자습실에 가는 사람도 많지만 저는 이동 시간이 아



까웠어요.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공부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 낭비가 많을 것 같아요. 집중이 되고 안 되고는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장소를 탓하지 않고 어디서든 공부에 몰두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어요. 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두어 번 있기는 해요. 만화책을 숨길 장소가 필요했거든요. 당시에는 거실에 있는 제 책상 서랍 뒤쪽에 몇 권밖에 숨길 수 없어서 정말 곤란했더니까요(웃음). 하지만 제 방을 원했던 이유는 그 정도였고 진심으로 원했던 적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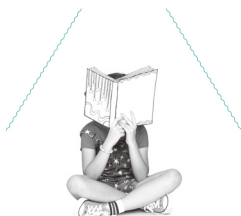


### 셋째의 이야기

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두 형과 같이 사는데 여전히 제 방은 없지만 혼자 사는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네요. '나만의 물건' 자체가 별로 없어서 제 방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거든요. 본가에서는 거실에 있는 책상이나 좌식 테이블에서 공부했어요. 그야말로 일상 속에서 공부를 한 셈이지요.

## 휴식 방침

# TV, 게임, 만화는 '특별한 일'로 정한다



TV나 게임, 스마트폰에 빠져서 아이가 도통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엄마가 많다. 우리 집의 경우 TV는 여름에는 덮고 겨울에는 추운 2층 방에 있다. 아이들의 공부 책상은 거실에 있고 그 옆방에 서 이불을 깔고 자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로 가지 않는 장소다.

나는 항상 아름다운 동요 CD를 들려주거나 그림책을 읽어 주고 싶었으므로 첫째가 태어나기 전에 TV를 2층으로 옮겼다.

물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자 '재미있는 프로가 있다는데 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다. 그때는 시험기간만 아니면 그 프로를 보여 주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물건을 험하게 다루지 않는다. 약간 낭비하는 적은 있어도 상식에 벗어나게 돈을 쓴 적은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만사를 통제하면 아이들도 답답하고 나도 지친다.





## 컵라면은 시험공부의 상으로

나는 평소에 감자튀김이나 초콜릿 같은 간식을 사지 않는다. 컵라면도 몸에 좋지 않으므로 일절 먹이지 않았다.

간식은 시간이 있을 때 도넛을 만들어 주는 정도다. 학교까지 거리가 있으니 지하철에서 배가 고플 것 같아 도시락과 따로 주먹밥을 싸줬다.

그렇지만 몸이 아플 때나 치과에 갔다 오는 길에는 과자를 사 줬다. '오늘은 특별한 날'임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맛있게 간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첫째가 나다중학교에 들어가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전에는 밤늦게까지 공부하게 되었다. 한창 자랄 때이니 배가 고프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시험도 비밀상적이고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컵라면을 준비했다.

이때 시험을 치는 아이에게만 컵라면을 주면 못 먹는 다른 아이들이 불쌍하다. 엄마가 너무 원칙만 앞세우면 시험을 치는 아이도 다른 형제의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하게 컵라면을 먹을 수 없으므로 항상 4인분을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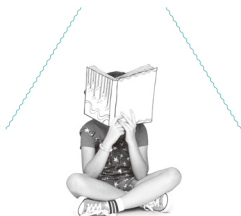
나는 슈퍼마켓에 가서 여러 가지 맛의 컵라면을 4개씩 전부 40개 정도 카트

에 신고 산타클로스처럼 커다란 보따리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신이 할 일은 확실히 하게끔 하되 열심히 노력했을 때 비일상적인 즐거움을 안겨 주면 아이는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성적을 올리는 비결이기도 하다.

## 칭찬과 꾸지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담담하게,  
엄마는 일정한 기분을 유지해야 한다



나는 아이들이 세 돌 정도까지는 뭐든지 “굉장하네!”, “잘했어!”라고 손뼉을 치며 칭찬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들이 자라자 큰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거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전교 상위권에 들었을 때 정도에만 칭찬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잘했어, 정말 대단한데.”라고 한두 마디로 끝이다.

‘칭찬이 아이를 키운다’는 교육 방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 나도 아이들의 좋은 점은 칭찬해 왔다. 하지만 너무 호들갑스러운 칭찬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아이들을 낙담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좋은 점수를 받으면 엄마는 기분이 좋아져서 나를 칭찬해 줘’가 되면 아이는 ‘나쁜 점수를 받으면 칭찬해 주지 않아’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경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않을까? 그것은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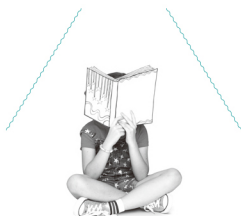
네 명을 키우면서 느낀 점인데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감정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점수가 좋았을 때나 나빴을 때나 감정의 변화 없이 아이를 대하자.**

나는 요란하게 칭찬하지도 않았지만 심하게 혼내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이는 시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점수를 감추지 않았고 뭐든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칭찬할 때의 ‘잘했어’와 실패했을 때의 ‘아깝네’를 같은 어조로 말해야 아이가 상처 받지 않는다.

가족이 한 마음이 된다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명절도 없다



입시는 아이 혼자 외롭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길동무가 좋으면 먼 길도 가깝다’이다. 엄마인 나와 콤비로 뛰는 것은 물론이고 나는 남편과 다른 아이들에게도 “올해는 ○○장이 시험을 봐. 그러니까 집중해야 하는 시기야.”라고 말해 두었다.

우리 집은 네 아이가 중학교 입시를, 세 아이가 대학 입시를 겪었다. 첫째가 중학교 입시를 치른 해부터 거의 매년 누군가가 입시를 치렀다. 그런 해에는 명절도 건너뛰었다. 12월 31일에 먹는 국수와 1월 1일에 먹는 떡국을 준비하고 팽이다.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하



## 미신에 의지하기보다는 일상을 성실하고 차분하게 보낸다

대학 입시일이 다가오면 부모도 아이도 마음이 어수선해진다. 매일 열심히 공부했지만 정말 괜찮을까?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불안한 마음을 다독거리기 위해 어떤 사람은 신사에 소원을 빌러 가거나 파워 스톤을 사기도 한다. 초조한 나머지 여러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에게 소원 빌기’, 즉 미신이다.

하지만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정해진 일을 성실하고 차분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그날 24시간을 잘 활용할지만 생각하자. 식사, 학교, 학원, 귀가 후에는 사회 과목 문제집을 15쪽에서 20쪽까지 풀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된다. **어제 일은 잊어라. 오늘 일만 생각하자.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말자.** 나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신에게 소원 빌기’ 같은 비일상적인 일은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쌓아 가는 편이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 당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은이 사토 료코(佐藤亮子)

일본의 나라 현(奈良県)에 거주 중인 전업주부. 오이타 현(大分県)에서 자라나 쓰다주쿠(津田塾) 대학교를 졸업 후 오이타 현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2년간 교단에 섰다. 그 뒤 결혼하여 남편의 근무처인 나라 현으로 거처를 옮겨 전업주부가 되었고 아들 셋과 막내딸을 낳았다.

삼 형제가 모두 명문 사립인 나다(灘) 중·고교에 진학했다. 체육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학교 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일본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렵기로 유명한 도쿄대 의대에 합격했다. 삼형제가 모두 도쿄대 의대에 합격한 것은 극히 드문 경우이므로 자녀 교육 비결과 입시 공부 방식에 주목을 받았다. 《주간 아사히》, 《AERA》, 《여성 자신》, 《선데이 마이니치》 등 여러 미디어에 기사가 실렸고 고등학교와 입시 학원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저서로 『합격 신 엄마의 영재 교육법(스타북스)』(『灘→東大理3'の兄弟を育てた母の秀才の育て方』)가 있다.

## 옮긴이 오시연

동국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외어전문학교 일한통역과를 수료했다. 번역 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역서로는 『회계의 신』, 『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들』, 『병에 걸리지 않는 15가지 식습관』,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 『현금경영으로 일어서라』, 『거짓 숫자에 속지마라』,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simple 회계 공부법』, 『만만한 회계학』, 『쉽게 이해하는 IFRS』, 『세상에서 제일 쉬운 회계수업』, 『퇴근시간이 빨라지는 비즈니스 통계입문』, 『드러커 사고법』, 『겉잡이를 위한 주식투자』, 『원소주기(공역)』, 『월급쟁이 자본론』, 『누르지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는 기적의 손마사지』, 『핵심정리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69』, 『처음 만나는 회계 1교시』, 『엄마가 믿는 만큼 크는 아이』 등이 있다.

# 읽으면 반드시 힘이 솟는다! 성과를 낼 수 있다!

## 제1장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아이를 합격으로 이끄는 것은 **엄마인** 당신입니다!

## 제2장

아이가 익혀야 할 **학습 방법과 자세**, 그리고 **엄마가 할 일**

## 제3장

초등학생의 공부 방법과 **중학교 입시 대책**

## 제4장

중·고등학교 시절의 공부 방법과 **도쿄대 입시 대책**

충실한 Q&A와 **칼럼도 수록!**

---

값 16,000원



9 788968 196089

ISBN 978-89-6819-608-9